

김정석담시집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 김경석담시집 ◆

백 일 홍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최순란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百日红: 朝鲜文 / 金庚石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5

ISBN 978-7-5449-0282-3

I. 百…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
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68299号

百日红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25 字数: 16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82-3 (民文)

版次: 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백일홍》을 펴내면서

거국산하가 환희에 넘칠 북경올림픽경기대회의 해 무자년을 앞두고 저물어가는 정해년 동지달에 담시집 《백일홍》을 엮고나니 감개무량한 마음을 숨길수 없다. 그것은 20세기 50년대에 접촉하여 60년대에 쓰기 시작한 담시를 오랜 시일에 걸쳐 쓰며말며하다가 “주선률”, “다양화”가 강조되던 시기부터 다시 시문학장르다양화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절감하면서 붓을 들게 되어서이고 또한 잘 쓰나 못 쓰나 우리 시의 백화원에 한송이 꽃이라도 더 피워 독자들에게 정신적식량을 공급하려는 선의로부터 시도한 산아이기때문이라 하겠다.

담시를 두고 사전들에는 여러가지로 해석되어있지만 모두어말하면 일정한 설화적슈제를 가진 자유로운 형식의 짧은 서정서사시, 단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시라고 할수 있다. 일찍 조선에서는 외래어(로어)로 “발라다”(Баллада), 한국에서는 외래어(영어)로 “발라드”(ballade), 일본에서는 “바라도”(バラード)라고 하였고 또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있다.

담시는 13세기 봉건국가체제였던 북부프랑스에서 산생되었고 봉건시대의 이탈리아 즉 신성로마제국에서도 창작되었으며 14세기에는 영국의 민간에서 보급되었고 북부유럽에서도

씩여졌다고 한다. 19세기에는 로씨야에서 담시가 대두하게 되었으며 그 첫 명수로 와셀리 안드레위치 주콥스끼(1783년-1852년)를 들고있다. 그는 늘쌍 민간에 류전되는 신화이야기에서 취재하여 담시를 창작하였는바 그의 대표적작품으로는 “류드밀라”(1808년), “스위트란다”(1808년-1812년), “잠자는 열두 처녀”(1817년) 등을 들고있다.

조선민족의 담시는 구전민요에서 찾고있는바 특히 비교적 긴 부요(婦謠)를 서사적요소가 있는 담시로 인정하고있다. 부요는 대략 14세기 봉건시대에 창작된 민요의 일종으로서 그 시대 조선녀성들의 무권리한 생활과 억울한 처지를 반영하고있으며 극적 또는 서사적 요소가 풍부하고 예술성도 비교적 높은 작품으로 인정하면서 그 대표적작품으로 《시집살이》를 들고있다.

중국조선족의 담시창작은 20세기 50년대 조선시문학과 그를 통한 쏘련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다. 50년대 조선에서는 《조선문학》, 《문학신문》 등 간행물을 통하여 담시창작의 열조를 일으켰으며 엄호석, 리효운 등 적잖은 문학평론가들이 담시창작에 대한 탐구적 또는 지도적인 문장들을 발표하면서 쏘련시인 니콜라이 쉼메노위치 찰호노브의 “푸른 봉서에 관한 발라다”, 알렉산드르 프리포노위치 프와르톱스끼의 “동지에 대한 발라다” 등 적잖은 발라다를 언급하였으며 조선시인들의 담시창작으로 조기천의 “그들은 셋이었다”, 전동우의 “세 유격대원의 이야기” 등 적잖은 작품들을 그 례로 들었다.

연변의 담시창작은 20세기 50년대로부터 온양되면서 서사적요소를 도입한 시들이 담시형태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60년대로부터 담시라는 이름으로 창작의 열조를 보

이다가 60년대 중기로부터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게 된것으로 알고있다. 1978년 12월 중공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후 연변의 시문학창작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침묵을 지키던 시인들이 다시 붓을 들고 시문학창작의 새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4년 여름 《연변문예》편집부에서 소집한 시문학창작좌담회에서 나는 이렇게 발언한바 있다.

“독자들이 좋아하며 애독하는 시를 쓰자면 시라는 자체의 특점을 살리면서 서사성을 도입하는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사시, 서정서사시를 내놓고도 서정시를 담시형식으로 독자를 끌수 있도록 쓰거나 민간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즐기는 독자들의 특점에 쫓아 이야기거리가 있는것을 시로 정리하는 작업도 좋지 않겠는가고 생각해본다.”

이 말의 뜻인즉 담시도 우리 시문학장르의 하나로, 시단의 백화동산에 독자들이 즐기는 한떨기 꽃으로 피움으로써 우리 시의 다양화를 확보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이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붓을 들고 나서는 시인은 많지 못했다.

담시창작에 대한 논의를 보면 첫째, 담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이 바로 서정적주인공이다. 담시의 주인공은 벌어지는 사건속의 직접적인 참가자로 홀로가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행동하면서 사건과 성격에 대한 묘사를 적극 도우며 많은 경우 시인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게 된다. 시인은 이야기의 전달자로서 앞에 나서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주인공에 대한 자기의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게 된다. 둘째, 주인공에 의해 벌어지는 설화적슈제트(이야기줄거리)는 보통 팽팽한 호흡과 빠른 속도를 가진 일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극적인 사건으로서 그 묘사는 전형적인 계기에 대한 집약적이고 형상적인 묘사이므로 지엽적이거나 부차

적인것은 대담히 생략해 비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사건의 앞뒤와 이야기의 내재적론리가 이해되고 암시될수 있도록 묘사하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물의 성격창조를 위한 대사를 적용한다. 당시의 대사는 개성적이면서도 아주 절약된 언어여야 하며 긴장하거나 심각한 장면에서 장황한 말은 구사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당시의 언어는 일정한 내재물과 운을 갖춘 언어여야 하며 시행은 보통 2행시, 4행시, 8행시로 유지만 형상창조, 주제구현에 필요하다면 시행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이럴진대 한편의 담시를 제대로 쓴다는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다.

담시창작의 기성리론과 실천경험을 습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발전과 더불어 사회주의적신형인간의 심미적 수요에 좇아 새 창조의 정신을 앞세우고 이렇게 또는 저렇게 집필해보는 창작적시도도 제창하지 않으면 아니될줄로 안다.

호금도동지는 중공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과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견지해야 하고”, “인민의 주체지위와 현실생활을 반영하고 대중이 즐겨하는 우수한 정신문화생산물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담시가 대중이 즐겨하는 정신문화생산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오직 시대의 고향과 대중의 접수여하에 의해 결정될것이고 시인의 사명은 오로지 그것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문예의 방향에 좇아 시대와 공존할수 있고 민족문화백화원의 한떨기 꽃으로, 독자들이 즐겨하는 질높은 작품으로 되게끔 간단없이 심혈을 몰붓는데 있지 않을가고 생각을 모두어본다.

담시집 《백일홍》은 이 점을 감안하고 20세기 60년대로부

터 근년에 이르기까지 가담가담 써온 담시 31수를 추려 도합 5부로 나누어 묶었다. 제1부 “봄날의 영광”에서는 중국 연변조선족인민들에 대한 당중앙의 다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관련된 설화를, 제2부 “화목한 세상”에서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조화로운 사회환경과 생활향상 및 민족단결에 관련된 설화를, 제3부 “혈전의 년대”에서는 중국국내해방전쟁시기 조선족군민들의 애국주의, 국제주의적정신과 영웅적투쟁업적을 반영하는 설화를, 제4부 “항쟁의 불길”에서는 항일투쟁시기 연변조선족항일투사들의 항일구국투쟁업적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반영한 설화를, 제5부 “신비한 전설”에서는 민간에 류전되고있는 구비전설을 각각 소재로 한 담시들을 나누어 엮었다. 그리고 엮음수요에 좇아 “가랑비 내리는 류월이 오면”과 “멜대를 멜 때마다”를 약간 수개하여 제1부에 넣었음을 부언하는바이다.

담시에 대한 리론적연구거나 창작이 아직 잠잠한것 같지만 시령역의 확대, 장르의 다양화와 더불어 한두송이 꽃이 아니라 백화가 피어나는 활기로운 국면이 이뤄지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변변치 못한 이 졸작들을 널리 량지하여 읊어주시고 보귀한 조언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끝으로 담시집의 출판에 관심을 돌려주신 연변인민출판사 사장님과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편집선생님들에게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바이다.

김 경 석

2007년 11월 25일

연길에서

..... 차 레

《백일홍》을 펴내면서 / 1

제1부 봄날의 영광

불멸의 노래 / 3

진홍의 동력 / 7

봄을 안고 오신이 / 13

가랑비 내리는 류월이 오면 / 17

세월은 흘러가도 / 23

멜대를 멜 때마다 / 27

잊을수 없는 날 / 32

제2부 화목한 세상

아기의 이름 / 39

사랑하는 나의 동무 / 42

행복의 감로수 / 46

호궁소리 / 51

오는 정 가는 정 / 54

시어머니 / 59

제3부 혈전의 년대

토담을 허문다 / 67

쌍둥이엄마 / 71

전선이 다가온다 / 75

최후의 결전 / 79

목란성의 메아리 / 84

해남도와 더불어 / 87

제4부 항쟁의 불길

밀림의 피꼴새 / 95

나루터의 풍운 / 100

어둠을 헤치고 / 104

길청령의 총소리 / 109

용맹한 “녀장군” / 114

천추의 기념비 / 120

제5부 신비한 전설

백일홍 / 129

수선화 / 134

신선초 / 139

두견화 / 144

빨간 장미 / 148

담자색꽃 피는 약초 / 153

제 1 부

봄날의 영광



불멸의 노래

—동방에 해가 솟았네
중국에 모택동 나타났네...

동방을 비추는 은혜로운 해발아래
가난의 멍에 벗은 변구의 한 농민¹⁾
심장의 피로써 엮어부른 민요
섬북의 고원에 울려퍼진 이 노래

세기를 날아넘는 신비로운 전설마냥
장성을 넘어 발해를 건너
뭇게치는 해방전쟁의 포연을 뚫고
장백산 해란강반에도 울려왔나니

전선으로 보내는 솜옷을 누비면서
이 노래 부르신 어머니의 시중들며
영호는 자랐더라
“동방홍”민요를 귀 익도록 들으며

해빛 밝은 교실에서 풍금을 치며
이 노래 가르치신 선생님의 사랑속에

영호는 공부했더라

“동방홍”민요를 첫 과로 배우며

인민의 구성을 높이 우러러

나어린 가슴에 붉은벙타이 매던 시절

영호는 들었더라

그이께서 조선족두루마기 입으신 이야기²⁾...

청춘의 가슴에 공청단원마크 달고

리상의 나라 키우던 그 나날

영호는 깨달았더라

그이의 “3호”³⁾지시 심원한 그 뜻을...

그때마다 항시 경건한 마음 안고

“동방홍” 밀어주는 새 힘에 부촉되어

영호는 튼튼했더라, 과학의 고봉으로

달려갔더라,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이웃나라 강산에 전쟁⁴⁾의 불길 일어

평화로운 국경선에 날름거릴 때

영호는 국제주의전사의 용맹을 떨쳐

전공을 세우고 화선입당 하였거니

얼마나 많은 당원들 이 민요 부르며

새 중국 창건 위해 목숨 바쳤고

얼마나 많은 영웅들 이 노래 부르며

사회주의조국 위해 피와 땀 뿌렸던가

준엄한 투쟁의 길목마다에
천험을 넘겨주는 “동방홍”
우람한 건설의 고비마다에
비약의 힘을 주는 “동방홍”

나라의 첫 인공위성⁵⁾ 떠오르는 나날에
영호는 들었더라
지구를 감도는 위성에서
우주에 보내는 “동방홍”악곡을!

북경에 펼쳐진 친선의 야회에서
영호는 보았더라
오대주의 벚들이 손에 손잡고
“동방홍”을 부르던 감격의 모습을!

이 노래 메아리치는 곳마다
진군의 발걸음 지축을 울리고
만민의 가슴에 대오의 진두에
모택동사상의 기치 눈부시나니

동방의 잠자는 사자라고
세인이 불러온 “CHINA” 중국은
새 장정 한길 따라 올라서리라
네가지 현대화 꽃동산마루에!

그날을 그리며 그날을 믿으며
영호는 생각한다

이 민요에 깃든 유서깊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리라고

반백이 된 머리카락 쓸어넘기며
영호는 다시금 나직이 불러본다
세기를 넘어온 인민의 송가
승리로 부르는 불멸의 노래

-공산당은 태양이라네
비추는 곳곳마다 환히 밝네...

《연변일보》 1978년 12월 3일

(2007년 9월 9일 수개)

[주해]

1) 섬서성 가현(佳县)의 농민가수 리유원(李有源, 1093-1955). 그는 1942년 겨울 섬북민가곡조에 맞춰 가사 “동방홍”을 지었음.

2) 1950년 10월 3일 모택동주석은 국경절맞이 연변인민대표단을 접견하고 조선족두루마기를 기꺼이 입으셨다.

3) 학습, 사업, 신체 세가지가 훌륭해야 한다는 지시.

4) 1950년 6월 25일 삼팔선에서 일어난 조선남북전쟁.

5)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 4월 24일에 “동방1호”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음.

진 흥의 동력

환희에 넘치는 경축대회장
천여쌍 새별이 우리르는 연단에서
격동된 마음 녹갯히며
자치주 주장은 연설했다

“...동무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서른한돛을 앞두고
경애하는 등소평동지께서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중요한 제사를 써주시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더욱 빨리
더욱 훌륭하게
건설해야 하겠습니다”¹⁾

물 뿌린듯 잠잠하던 장내엔
금시 열풍이 일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